

(주)쌍용동해산기 정주교

행복해야할 신혼 생활

3살 난 아이를 둔 한 가정의 정주교씨는 동료의 한순간의 실수로, 행복해야할 신혼의 단꿈도,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재해로 인해 빼앗기고, 30여 년 동안 12번씩이나 수술대에 오르내리며, 다리를 절단하는 것 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쌍용동해산기 안전지킴이로서 정년을 앞두고 있다. 금번 제1회 KISA 산업안전수가 공모에서 금상을 수상한 정주교씨를 만나 보았다.



강원도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 장맛비를 헤집고 동해시에 위치한 쌍용동해산기를 찾았다. 정주교씨는 이미 정문에 나와 나를 반겨준다. 내가 누구인지 이미 이야기가 있었는지 함께 있던 동료분들도 강원도의 풋풋한 마음으로 반겨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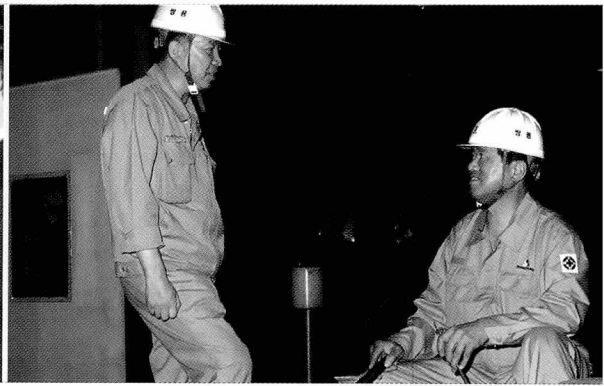
정주교씨는 처음 내게 그간 12번의 수술 흔적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지금까지 지탱해 왔는지 신기할 만큼 흔적은 처참했다. 지금도 수술부위가 악화되면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정주교씨는 치료받는 동안은 아내에게도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고 혼자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한다.

이번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시행한 제1회 KISA 산업안전수가 공모에서 영예의 금상을 수상하던 날, 그 동안의 아픈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아내와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의민이가 수기 내용을 눈물로 본 그날 이후 정주교씨 가족은 사랑을 다시 한 번 느꼈고 부자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사랑한다. 의민엄마 그리고 의민아

재해가 발생할 당시 아들인 의민이가 3살이었고, 정주교씨 나이 27살이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정주교씨, 짧은 시간에 자신이 앞날이 이렇게 처참하게 바뀔지는 몰랐다고 한다.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을 접한 가족 또한 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의민이 마저 그저 울고 있는 엄마를 보며 “아빠 죽었어?” 라고 했을 때, 그날이 어린아이에게도 충격이 있음을 아버지로서 알고 있었다.

한동안 정주교씨는 더 이상 말문을 잇지 못하였다.

수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가족을 많이 사랑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 특히 의민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그대로였다.

지금도 의민이에게 가장 미안한 것이 있다.

재해를 당하기 이전에 의민이는 퇴근하는 정주교씨의 자전거를 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다. 퇴근시간이 되어 아버지가 돌아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의민이였고, 회사일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날이면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울었던 의민이에게 더 이상 자전거를 태워 줄 수 없게 되었다.

아버지가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해주지 못한, 그 아픔은 오늘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끝내 정주교씨 눈가에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처럼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재해로 인한 아픔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나긴 세월동안 함께 아파해준 아내가 있었기에 그 아픔의 무게는 한결 가벼웠다. 오늘 정주교씨는 아내에게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한다.

정주교씨를 다시 태어나게 한 곳

산업재해로 인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정주교씨를 사랑으로 안아준 곳은 가족뿐만 아니라 쌍용동해산기 식구들 이었다.

아내 혼자 다리가 불편한 남편을 오랜동안 간병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의민엄마와 정주교씨 가족에게 힘이 되어준 것이 바로 직장 동료들 이었다.


이들은 정주교씨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동료어로 정주교씨는 다시 회사에 복직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사고 이후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사고 이후 언제라도 정주교씨가 복직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배려해준 김동진 사장님은 정주교씨를 다시 태어나게 하였고, 정주교씨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이러한 주변의 사랑으로 1년 반을 앞둔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실 그 동안의 아픈 과거를 다시 꺼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주교씨는 나의 아픔이 교훈이 되어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에서든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직장생활이지만 정주교씨는 산 교육인이 되어 어디에든 달려간다.  〈최종덕 기자〉